

## 특별강연

| 일시 2020년 12월 16일(수) ~ 18일(금)



### 조 성 은

(주)무진기연  
대표이사

광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에너지소통·혁신위원회  
부위원장

## 에너지전환시대의 원자력 산업계 현황과 전망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진기연 조성은 사장입니다. 우리 원자력 업계가 처한 현실 상황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에 대해 오랜 세월 원자력 사업을 해 온 회사의 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 (주)무진기연은 30년 동안 오직 원자력 외길을 걸어온 원자력 전문업체로서 UAE 바라카 원전과 신고리5.6호기에 6가지 패키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R&D를 통해 Refueling Machine, Single Stud Tensionner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중수로 사용후연료건식저장설비(SWS)를 개발하여 해외 원전에 수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증기발생기 노즐담 국산화에도 성공하는 등 원자력 전문업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등의 미래를 생각하면 위축되는 바 없지 않고, 전력을 다해 사업에 매진해왔는데도 상황이 이렇게 되어 아쉽기만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국산화 R&D를 선언했을 때 모두 반대하고 비웃었지만 끝내 국산화에 성공했고,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중단되었을 때 모두 회피하는 원자력살리기협의회장 직책을 맡아 그야말로 현장을 발로 뛰어 공론화 성공을 이끌어 냈던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원자력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한수원은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았지만, 사실 이렇다 할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데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말, 광주전남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소통혁신위원회'를 발족하여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재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향후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사례로 확대되어 한수원과 국민 사이의 소통의 장으로서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원자력 정책은 현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원점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의 트렌드가 그렇고, 국내외 전력 시장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준비를 해나가고 산업계와 학계와 연구조직 등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노력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